

주 제:	“천국의 열쇠”	“연중 제 21 주일”	2008년 8월 24일
복음 묵상:	[마태 16,13-20]	[이사 22,19-23]	[로마 11,33-36]

우리 인생 여로(旅路)에는 수많은 문(門)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을 하나씩 열어야 다음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인생 여정의 끝에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문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하늘나라(天國)나 지옥(地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문들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 속에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열쇠, 믿음의 열쇠, 사랑과 용서의 열쇠도 있지만, 미움과 증오의 열쇠, 탐욕과 어리석음의 열쇠, 복수와 앙갚음의 열쇠도 있습니다. 사랑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모든 문을 사랑으로 엽니다. 그러면 사랑의 세계가 펼쳐지고 그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미움과 증오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모든 문을 미움과 증오로 엽니다. 그러면 싸우고 죽이는 아비규환(阿鼻叫喚)의 세계가 펼쳐지고 그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끝내 마지막 문인 죽음의 문마저도 자신이 가진 열쇠로 열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의 열쇠로 죽음의 문을 연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세계로, 탐욕과 증오의 열쇠로 죽음의 문을 연 사람은 탐욕과 증오의 세계로 빠지게 됩니다.

당신 손에 어떤 열쇠가 쥐어져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一明) (마산 관주석신부님 강론 중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김 효식 필립보네리 형제님, 금주 동부로 여행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박마리아 자매님 홍콩에서 자제분을 만나즐거워 시간을 함께 보내고 아무 탈없이 편안히 돌아왔습니다. 여행중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은순 아녜스 자매님은 아직도 여행중입니다. 여행중에 주님함께 하시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요청:

1. 김 재훈 세실리아 자매님이 8월 15일(금요일)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에 참석차 성당으로 오던중 자동차가 대파되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가대원들은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김 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불상사를 당했습니다. 기도중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알림

1. 신부님을 위한 영적선물: 미사(2번), 영성체(2회), 묵주기도(35단), 화살기도(10번), 사제를 위한 기도(10번), 희생(2번), 선행(5번)등 신부님을 위한 영적 선물을 기도중에 꼭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2. 성가대 피정(9/13)이 잘 진행되어 모든 성가대 가족들이 은혜중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와 참가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1분 명상

♡"많이 아픈 꽃일수록 더 아름답다"♡



나뭇잎 하나를 무심코 떼어내면
그 나무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이것은 사람의 감상이 아니다.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나뭇잎을 떼어낸 사람이 지나가면
그 나무는 진을 흘린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런 나무의 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상처 없는 생이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이 문제이다.

진주는 조개의 상처에서 태어난다.
상처는 아픈이고 그 아픔을 오래 품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하나의 보석이 되는 것이다